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제 13 과

#### 자매들의 인간 생활과 가정 생활(1)

인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교회 생활을 위해 합당한 가정 생활을 세움

성경: 골 3:18 - 4:1, 잠 14:1, 31:10-31

#### I.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되시길 갈망하신다 — 골 3:18-4:1, 엡 5:22-6:9, 비교 찬송가 403 장(한국복음서원 304 장).

- A. "나는 추구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자매들이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영적'이어서 특이한 피조물, 곧 반은 사람이고 반은 천사처럼 보였다. ... 우리는 모두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선호한다. 특별히 자매들은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만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에스겔의 이상, 영문판 33 쪽) — 비교 겔 1:5, 10.
1.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면 더 이상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 비교 행 16:7.
  2. 주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매우 인간적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된 방식으로 인간적이게 되기를 배워야 한다 — 마 15:32, 막 10:13-16, 눅 7:11-15, 요 19:25-27, 빌 1:21 상.
    - a.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참된 인간 생활을 살아야 한다 — 갈 2:20, 빌 3:10, 1:19-21 상.
    - b.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높은 인간 생활, 곧 주 예수님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 B. 힌두교와 불교와 천주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 생명에 대해 가치를 낮게 둔다. 그들은 결혼이나 합당한 가정 생활을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채로 머물기를 선호하며 천사와 같은 생활을 살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천사들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1. 천주교의 많은 수도승들과 사제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2.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 근원은 귀신적인 것이다 — 딤후전 4:1-3.
- C. 그리스도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녀들, 상전들, 노예들인 사람들에게 의해 표현되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우리는 합당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살아야 한다 — 골 3:18-4:1.
1.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 하나 안에서 산다면 우리의 인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생명 안에서 표현되실 것이다. 천사들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2.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치 있는 많은 공과들을 배운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보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지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결혼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 비교 창 29:16-30:24; 34:1-31; 35:16-22; 37:3-35; 42:29-38; 43:6-14; 45:26-27; 49:1-33.
    - a.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도 수도승이나 수녀처럼 살기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 b. 때가 되면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결혼해야 하고 결혼 생활의 체험들을 통해 그들의 인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배워야 한다.
  3.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들의 생활은 인간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 새로운 감상을 갖게 될 것이다.
- D.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한 영되는 것을 실행해야 하며 그분과 한 영되는 것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 살전 5:17, 엡 6:18.

1. 기도를 떠나서 다른 것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 a.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자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 b.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기도, 곧 숨쉬는 기도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산다.
  - c.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다.
  - d. 이 중점은 마치 큰 기계 안에 있는 작은 나사와 같다. 큰 기계가 작동할 때 몇 개의 작은 나사들에 의존한다.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핵심적이다.
  - e.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루 종일 "주님, 저를 통해 사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때 순간 기도하라.
2.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는 숨쉬는 것이고, 숨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 요 20:22, 렘 3:55-56.
  - a. 우리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있지만 아무리 바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쉰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숨을 쉰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숨쉬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 b. 하루 종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할 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부름으로써 해야 한다 — 시 116:1-2, 욥 27:10, 고전 1:2.
  - c.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숨을 쉰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II. 좋은 교회 생활은 좋은 가정들을 통해 유지된다 — 비교 잠 14:1, 31:10-31.

- A.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정 생활은 그들의 교회 생활과 큰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돌볼 때에만 다음 세대의 교회 생활이 강해질 것이다.
- B. 먼저 우리는 합당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세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 C. 합당한 가정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1. 한 가정 안에서 책임은 주로 아내의 편에 있다.
  2. 합당한 가정 생활과 합당한 가족의 생활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내가 대부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 D. 비록 남자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정의 참된 상황에 대한 비밀하고 실지적이며 실행적이며 주관적인 길은 여자 편에 달려 있다.
  1. 표면적으로 여자의 위치는 남자의 위치처럼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남자가 머리기 때문이다 — 고전 11:3, 엡 5:23.
  2.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여자는 크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여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
  3.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자는 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자는 결정들을 내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비록 가정의 일의 90퍼센트가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동의에 따르며 남편의 인도에 따라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 잠 31:10-31.
- E.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 잠 14:1 상.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사람의 얼굴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다. 우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같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중독되고, 손상당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졌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인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 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사람인 것이 지겹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인성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념이 주님께서서 그분의 구원에서 갖고 계신 관념과는 절대적으로 다름을 보아야 한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남편이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내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아내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부모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부모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자녀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떤 자매들은 인간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괴상한 피조물 —반은 인간이며 반은 천사—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우리에게 사람의 얼굴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인 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자신 그대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적인 인성이 아닌 주 예수의 인성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 보면 예수님이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볼 것이다. 사복음서를 읽는 많은 이들은 주님이 신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만 주시하고, 주님의 인성에 의해 이뤄진 것들에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 장은 어떻게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여행하고 계셨는가를 서술한다. 그분은 피곤하고 목이 말라 제자들에게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요청하셨다.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 가까이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왔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셨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묘사나 암시가 전혀 없었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 때, 자신이 사람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암시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 여자가 그분께 질문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9 절). 그분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질문에 답하셨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옷을 차려입는 어떤 종교인들과는 달리, 주 예수님은 옷을 특이하게 입지 않으셨다. 그분의 옷은 이상하거나 다른 이들의 옷과 다르지 않았다. 반대로 그분의 삶은 평범한 인간의 삶이었다. 그분의 삶은 어떤 이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마 13:55)고 말할 정도로 평범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며 사람의 얼굴을 지니셨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한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일단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평범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다. 복장에서 우리는 합당하지만 평범하며, 독특하거나 괴상하지 않다. 그렇다. 우리는 주님을 바랍, 구름, 불, 단쇠로 체험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지니는 것이다. 생물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며 바로 사람이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이 되면 될 수록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골 3:4)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지닐 것이다.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인간, 특히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가 되는 법(엡 5:22-6:9, 골 3:18-4:1)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하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장)

###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삶

먼저 여기에 주어진 모든 가르침들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룬다면 더 이상 인간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과 같아야 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천주교 안의 많은 수도사들과 사제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성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근원이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4 장 1 절부터 3 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다른 이들에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더 영적일수록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참된 방법으로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한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매우 인간적이셨다.

인간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을 위하여 창조하신 수단과 통로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을 금하고 사람들로 음식을 삼가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도가 인류를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단호히 거절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합당한 인성을 강조한다. 나는 나 자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생활을 조사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주 인간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성자’ 나 천사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다. 더욱이 나는 모든 장로들이 인간적이 되기를 격려한다. 장로들이 천사들과 같아서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을 모방하기는 원치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오히려 사람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룩한 본성을 가졌지만(벧후 1:4)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들이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과 함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참된 인간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간 생활, 즉 주 예수와 같은 인간 생활을 살 수 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사셨다. 주님의 인간 생활은 거룩한 생명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인간 생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한다.

5 장 1 절부터 16 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접촉하도록 가르친 것을 본다. 1 절은 “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한다. 늙은이를 아비같이 권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들보다 나이든 세대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젊은 형제들은 그들을 아비와 같이 대해야 한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 젊은이들을 형제같이, 늙은 여자를 어미같이, 젊은 여자를 자매같이” 권하라고 말한다. 디모데는 감독으로서 높은 지위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높게 여겨서는 안되었다. 반대로 그는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형제와 같이, 노인들은 아비와 같이, 나이든 여자는 어미같이 대해야 했다. 교회 생활에는 많은 아비들과 어미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처신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도를 접촉함은 합당한 분위기와 올바른 태도와 영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분위기와 태도와 영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일 젊은 형제가 나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높아진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손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들처럼 그를 접촉한다면 그들의 교통은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감동적이며 심지어 고무적일 것이다.

가령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교사로 처신하고 성도들을 나의 학생들로 취급한다 하자. 만일 이것이 나의 태도라면 성도들과의 나의 접촉은 매우 가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인간적이며 나 자신을 형제들과 자매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사이에 있는 형제로서 간주한다면 그 접촉은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적일 때 거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거듭 말하거니와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적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장).

### 인간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함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들의 윤리적인 관계에 관련된 3 장 18 절, 4 장 1 절과 자매 구절인 에베소서 5 장 22 절, 6 장 9 절에서 볼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의 강조점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몸의 표현을 위한, 영이 충만한 윤리적 관계의 필요에 대한 것이고, 골로새서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붙잡고 생명으로 받아들여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윤리적인 관계가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생활이 아닌 인간의 생활 안에서 표현될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들인 우리가 그 아들의 표현이 되도록 명하셨다. 『주 예수여, 나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골로새서의 첫 두 장 반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 3 장 15 절과 16 절에 이르러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에서 표현될 것이다.

힌두교나 불교나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수준 낮은 인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결혼이나 합당한 가정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신으로 남아 있기를 좋아하며 일종의 천사 같은 생활을 살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천사 같은 생활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인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가져야 한다.

여덟 명의 자녀와 이십여 명의 손자를 가진 나이든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법과 우리가 어떠한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그분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리시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운다. 나는 천사들이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지켜 보고 있다고 믿는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살기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 만큼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도 승려나 수녀같이 살기를 열망해서는 안 된다. 형제자매들은 적당한 때에 결혼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생활은 인간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가져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인간생활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이다.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신 모든 교훈들에 대하여 감사한다. 해가 감에 따라 나의 인간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배운 공과들에 더욱 더 감사한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2 절부터 25 절까지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24 절에서는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요점이 에베소서 6장 8 절에서는 여기서 만큼 분명치 않다. 믿는 이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롬 8:17, 행 26:8, 벴전 1:4). 유업의 상은 주께서 믿는 이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봉사에 신실하도록 하나의 자극제로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상을 놓칠 것이다(마 24:45-51, 25:20-29).

연구 문제:

1. 인간 생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2.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3.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가정 생활을 세움에 있어서 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중요합니까?

참고 도서와 추가로 읽을 내용:

1.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장.
2. 디모테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장.
3.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장.
4. 온전케 하는 훈련 13, 14, 15, 16 장.
5.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1 권, "동역 안에서 봉사하며 사랑 안에서 씻음" 메시지 15 장.
6. 위트니스 리 전집 1975-76 년, 1 권,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의 핵심적인 기능".